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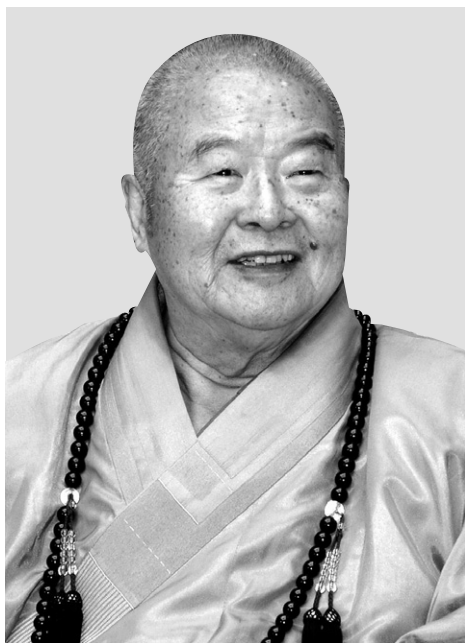
“자비심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화현”



성운대사의 관세음보살 이야기
성운대사 지음
운주사 펴냄
1만8천원

대승불교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평안함을 주는 존재가 있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분이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인가? 이 책은 바로 어릴 적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후 오랜 세월동안 관음기도를 해 온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가 관세음보살 신앙과 이론적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 놓은 책이다. 관세음보살은 누구이고, 어디에 계시는지, 또 그 분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1부는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현묘한 지혜’에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때론 이론적으로, 때론 경전과 고사, 영험담을 들어 현대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특히 관세음보살과 직접 인연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음은 당신 집에 있다’는 항목을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임을 깨닫게 해준다. 중생을 보살도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유용



들이 관음력을 길러 인간정도를 이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2부 ‘관세음보살보문품강화’에서는 성운대사가 모리시타 다이엔이 쓴 ‘보문품’ 해설을 읽은 시절에 번역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덧붙여 알기 쉽게 편역한 것을 신고 있다. 따라서 제 2부는 ‘보문품’에 대한 온전한 경전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음보살과 불광인의 인연이야기’에서는 불광산 사부대중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관세음보살의 영험기를 수록하고 있다.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자비와

가피를 받은 사연들이 수록돼 있는데, 마치 ‘보문품’에서 설한 경전 내용을 현실 속에서 증명이나 하는 듯, 하나같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감동을 준다.

이렇듯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존재와 관음신앙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의미, 다양한 실천수행법과 영험담까지 제시함으로써 관세음보살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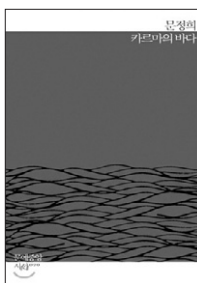
- 성운대사는?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서 태어나 12세에 지게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1947년 초산불학원을 졸업하고, 백담초등학교 교장, 남경 화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로 ‘대만불교강습회’ 교무주임과 의란 영불회 지도 법사 등을 역임했다. 1967년에는 고웅(高雄)에 불광산을 창건해 불교와 세상을 아우르는 ‘인간불교’ 사상을 추진해 옴으로써 현대화된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출가 후 70여 년 동안 불광산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200여 개의 도량을 세웠고, 수많은 강원도 도서관, 대학, 병원, 사회사업기구 등을 설립했다. 세계 각지로 부터 출가한 제자가 1천여 명, 전 세계에 분포하는 국제불광협회 신도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정화 상징 ‘물’과 만남이 ‘카르마’

카르마의 바다

문정희 지음 | 문예중앙 펴냄 | 8천원



시인 문정희 <사진>는 지난해 가을과 겨울을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보냈다. 선망의 여행지 베네치아였지만 종일 발밑에서 잘싸이는 물은 문정희를 비감(悲感)으로 때릴었다.

그 곳에서 떠올려진 시상들은 곧바로 시가 되었다. 그 것들을 묶은 새 시집이 바로 이번엔 출간된 <카르마의 바다>이다. 모든 길이 물로써 시작되어 물로써 이르고 모든 바다가 물로 출렁이고 모든 끝이 물에 닿는 도시에서, 시인의 ‘물에 대한 감각’은 극대화되었다. 오랫동안 생명력과 정화의 상징으로써 물의 언어를 구사해오던 시인은, 이 시집에 이르러 마침내 그 언어의 정점에 이르렀다. 먼 이국에서 온 시인에게 베네치아의 물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형벌처럼 고통을 내리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수가 되어주기도 했다. 이 모든 물과의 만남을 시인은 ‘카르마’로 받아들인다.

지구를 덮고 사람의 몸속을 흐르고 눈물로 배어 나오는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거기에는 비감이 가득하다.

“많은 바다를 건넜지만 눈물을 다 건너지는 못했다...나는 모르겠다/나는 아직도 눈물을 건너지고 있다” (소금꽃중에서)

관념을 떠돌기 쉬운 생명의 물은 시인의 시에서 눈물과 진흙탕 같은 구체적 사물로 단단히 서 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이죠. 정화하고 갱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관념적이고 실감이 없어요. 베네치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문학은 관념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야하지.”

홀로 생명과 별이는 사투와 그 속의 비감은 처절하다. 시인에게 ‘발로 뭉개면 더욱 꿈틀거리기 찬란한 절규!’의 지령이와 ‘바르르 입술 떨며 푸른 살로 일어서는 맨살의 아우성!’의 절경이 어머니다.

문 시인은 “삶의 본질은 상처죠. 그렇지만 소외받고 고통받았고 가난한 게 상처가 아니에요. 해가 가고 나이가 들고 혼자 시소를 타면서 건너편에 아들이 타고 있을 때 느끼는 것이 비감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어요.”라고 설명한다.



1부 ‘살결’에서는 극한의 고통과 생의 비애, 사랑의 뜨거움을 노래한 시들을 묶었다. 가을 길 없는 슬픔(“열마를 더 가야 하는 것일까/한없이 무거운 슬픔의 무게를”, ‘시이소’)과 대작하고, 사랑에 온몸을 던지고(“나는 한 번도 사랑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씨앗처럼 온몸을 던질 뿐이다/그때마다 불꽃일 뿐이다”, ‘날벌레의 시’), 우리 같은 존재를 들여다본다(“망원경이 되어 별자리를 바라보고/하늘 중에서도 깊은 하늘을 향해하다/그만 깨지고 마는 우리를 닮은/내 사랑은 어찌하여 이리도 슬픈 두꺼야야 하는가”, ‘유리 이야기’)

2부 ‘물결’에서는 물방울 하나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스스로 물의 언어를 구사해오던 시인은, 이 시집에 이르러 마침내 그 언어의 정점에 이르렀다. 먼 이국에서 온 시인에게 베네치아의 물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형벌처럼 고통을 내리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수가 되어주기도 했다. 이 모든 물과의 만남을 시인은 ‘카르마’로 받아들인다.

2부 ‘물결’에서는 물방울 하나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스스로 물의 언어를 구사해오던 시인은, 이 시집에 이르러 마침내 그 언어의 정점에 이르렀다. 먼 이국에서 온 시인에게 베네치아의 물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형벌처럼 고통을 내리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수가 되어주기도 했다. 이 모든 물과의 만남을 시인은 ‘카르마’로 받아들인다.

지구를 덮고 사람의 몸속을 흐르고 눈물로 배어 나오는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거기에는 비감이 가득하다.

“많은 바다를 건넜지만 눈물을 다 건너지는 못했다...나는 모르겠다/나는 아직도 눈물을 건너지고 있다” (소금꽃중에서)

관념을 떠돌기 쉬운 생명의 물은 시인의 시에서 눈물과 진흙탕 같은 구체적 사물로 단단히 서 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이죠. 정화하고 갱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관념적이고 실감이 없어요. 베네치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문학은 관념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야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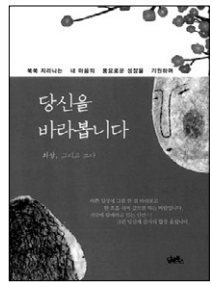
홀로 생명과 별이는 사투와 그 속의 비감은 처절하다. 시인에게 ‘발로 뭉개면 더욱 꿈틀거리기 찬란한 절규!’의 지령이와 ‘바르르 입술 떨며 푸른 살로 일어서는 맨살의 아우성!’의 절경이 어머니다.

문 시인은 “삶의 본질은 상처죠. 그렇지만 소외받고 고통받았고 가난한 게 상처가 아니에요. 해가 가고 나이가 들고 혼자 시소를 타면서 건너편에 아들이 타고 있을 때 느끼는 것이 비감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어요.”라고 설명한다.

일상 깨달음 그림일기 형식으로 묶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희상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5천원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많이 길들여졌다. 그러나 미술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이 많다. ‘저게 뭘까?’ ‘왜 그랬을까?’ 등등. 그럴 때, ‘이게 뭐야?’ 하는 물음을 일으키는 눈과 느낌과 생각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며, 기본이 된다.”

몇 년전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고무신’ 설치작품전을 연 희상 스님이 최근에 책을 냈다. 그동안 꾸준히 그려온 그림과 전시회 때의 고무신 작품들이다. 한 호흡 쉬어가게 하는 짧은 글을 담은 <당신을 바라봅니다>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심히 호미를 들고 나가는 농부처럼 예술 작업을 하는 희상 스님은

미술 활동을 통해 부처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현대 미술을 많이 어려워한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이 많다.

희상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여 예술에 좀 더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감각적 요소가 최대한 떨어지지 나간형태에 있어서만이 감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처럼 예술과 종교의 본질 추구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엮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하는 이들과 일상의 모습들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읽기도 쉽고 한 걸음 쉬어 갈 수 있는 여유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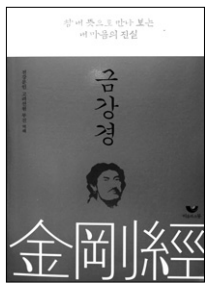
희상 스님은 경북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 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독일로 건너가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동안 회화, 설치 작업을 해왔다.

김주일 기자

재가자가 한글로 쉽게 풀이한 <금강경>

내 마음의 진실 금강경

무진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3만3천원



‘잡 내 뜻으로 만나 보는’ <내 마음의 진실 금강경>은 시중에 나온 수많은 금강경 해설서 가운데 하나지만, 보기 드문 책이다. 그 이유는 이 책 저자가 스님이나 불교학자가 아닌 재가 선(禪) 수행자로서 “이 빛고” 화두를 깨친 거사(居士)인데다, 기존 한문 금강경을 전문불교용어가 아닌 일반적 한국어로 쉽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6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 받은 당대 대신 사인 전강(田岡, 1898~1975) 선사 문인(門人)으로서 40여년 참선한 깨달음의 안목으로 바탕으로 <금강경>을 핵심적 뜻의 흐름으로서, 또는 육조혜능선사의 돈오선(頓悟禪)의 뜻으로, 또는 당신의 구체적인 수행체현을

근거로 자상한 도움말을 주고 있다.

저자인 안산 고려선원장 무진 거사는 이 책의 발행을 계기로 몰골(찰나에 몽땅) 깨달은 돈오선(조사선이 되살아나서 나날이 참체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풍토가 되살아나기를 발원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해서 출가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선(禪)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당장 깨달을 수 있는 언하대오(말씀에 단박 깨침)의 기쁨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평생을 수행해도 깨닫기는커녕, 온갖 선병으로 고통 받거나 깨닫지 못한 좌절감으로 참선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화두선(간화선) 수행자들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나도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단어와 같은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2년 동안 조계종 기본경전인 <금강경>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을 위해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좀더 많은 불자들이 이 경전을 접해 수행하는데 큰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진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선별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게, 향화계, 오공양, 읊남, 기경이, 범고
□ 사 물 : 범당복,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대학교 경북동부교구 중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계,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판곡,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개강일 :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2. 수 입 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설립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5. 강주스님 : 현공스님 (010-4783-0077)
6.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전화접수 가능)
7.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 없이 가능

한국 불 교 대 고 중
경북동부교구 중무원